

광주·전남 가계 빚 11조원대 육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조5천억 ... 부실 우려 심화

전국 금융권 가계대출 500조 달해

올 들어 광주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광주·전남의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경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00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비은행 금융기관 제외)은 6조8천197억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6조1천731억원)에 비해 10.5%(6천46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 들어 광주 서민가계의 빚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광주는 또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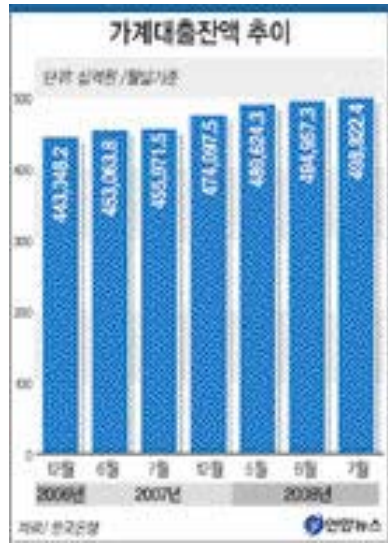
다. 7월 현재 광주·전남의 주택대출은 4조11억원으로, 1년 전(3조6천279억원)보다 10.3%(3천732억원) 증가했다.

전남도 7월 가계대출이 4조1천405억원으로 1년 전(3조9천847억원)에 비해 3.9%(1천558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조5천111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7월 현재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498조8천22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24조7천249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250조5천659억원으로 올



들어 1.9%(4조7천430억원) 증가했다.

주택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월 현재 231조8천901억원으로 올 들어 4.4%(10조2천501억원) 늘었다. 1~7월 기준으로 올해의 증가액은 2006년(12조9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의 7월 한 달간 증가액은 2조4천130억원으로 전월(1조3천223억원)보다 확대돼 2006년 12월(3조1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월의 주택담보대출은 과거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70조8천967억원으로 올해 5.0%(12조9천412억원) 늘었다. 비수도권은 108조4천635억원으로, 같은 기간 2.6%(2조7천380억원) 증가했다.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19조4천621억원으로, 올해 8.2%(9조455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탁·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잔액이 101조3천536억원에서 110조3천843억원으로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카지노 딜러 전공자들의 시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8 미래직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지노 딜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천여 지역 조합 통폐합 등 농협 대대적 구조조정 나서

중앙회장 연임도 한 차례로 제한

정부가 현재 전국 1천196곳에 난립한 지역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합과 출자작용을 맺은 조합원을 우대하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권한집중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협합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나쁜 조합의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또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성실히 지키는 조합원(약정조합원)을 조합사업참여 및 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협 조합원임에도

가격에 따라 일반 상인에 농산물을 넘기는 일이 많아 농협의 경제사업이 부진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역할도 분명히 구분했다. 현재 조합장은 대표·집행·조합기관 소집권 등의 전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집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고 비상임직

으로 바뀐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감독만 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권한 역시 축소된다. 현행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못 박고, 현재 사실상 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과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의 주요 임원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와 대의원 의결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에서 각 조합장은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이 조합원 수에 따라 1~3표씩 차등 적용된다. 대의원 수 역시 시·도당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재분배된다.

/연합뉴스

한국, 쇠고기·와인 물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싸

소비자시민모임, 'MB 물가관리 품목' 28개국과 비교

우리나라의 생활필수품 물가를 외국과 비교한 결과 국산 쇠고기, 와인, 청바지, 수입 분유 등의 가격이 유독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8일 28개국의 식품·생활필수품 52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물가를 조사한 결과 국산 쇠고기와 와인, 청바지, 수입 분유, 수입 패치고기, 휴대전화, 포도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상위 5위권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국은 지난해 세계 경제 순위가 56위 안에 드는 국가를 가운데 국민총생산(GDP) 규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여부 등을 따져 고루 선정했다. 조사 품목은 이른바 'MB 물가관리 품목'에 드는 52개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통 조사가 가능한 52개를 대상으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지명도가 높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브랜드를 골라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일반 슈퍼마켓 등 세 가지 유통매장 유형별로 최종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뒤 평균을 내 원화로 환산했다.

그 결과 칠레산 수입 와인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소비뇽(2007년 산)'은 러시아(6만9천345원)에 이어 한국이 3만5천900원으로 2위에 올랐다.

국내산 쇠고기는 안심 스테이크용 kg당 일본이 9만5천130원으로 가장 비쌌

고 이어 한국(8만6천600원), 독일(8만4천238원), 스위스(7만8천450원), 영국(5만9천838원) 순이었다. 수입 쇠고기는 한국이 6위(5만2천600원)였다.

청바지는 '리바이스 501'의 경우 한국(15만4천667원)이 일본(19만8천187원), 독일(16만574원)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고, 수입 분유(씨밀락 어드밴스드 800g)도 터키(3만2천213원), 스페인(2만9천175원)에 이어 한국(2만8천800원)이 3위였다.

휴대전화(삼성 SCH-I600)는 터키(72만6천295원), 프랑스(70만9천625원), 폴란드(68만8천693원), 한국(65만7천원) 순이었고 수입 패치고기(몬가스 용 1kg)와 포도(500g)도 한국이 네 번째로 비쌌다. /연합뉴스

재래시장서도 신용카드 쓸 수 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도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씨카드사는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훈텔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고 ▲재래시장 상인 대상 물품결제 카드 발급 ▲재래시장 제휴카드 발급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씨카드사는 우선 내달부

터 전국 35만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물품결제카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물품결제카드란 상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와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을 결합한 상품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이 카드를 발급받아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재산 570억 弗 빌 게이츠

15년 연속 美 최대 갑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5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7일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1위 빌 게이츠와 2위인 '투자의 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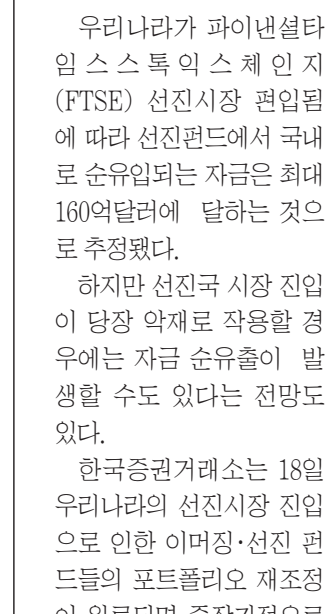
워런 버핏의 재산은 각각 지난해보다 20억 달러씩 감소한 570억 달러와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총 재산액 270억 달러의 오라클 창업자 로런스 엘리슨이었으며,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의 후손 4명이 각각 230억 달러대의 재산으로 4~7위를 차지했다. 한편 400대 발표된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1위 빌 게이츠와 2위인 '투자의 귀재'

/연합뉴스

한국 증시, 선진국 시장 편입 최대 160억달러 순유입 기대

FTSE회장 "코스피 지수 3~5% 개선 효과 있을 것"



우리나라가 파이낸셜타임스 스톡 익스 체인 지 (FTSE) 선진국 편입에 따라 선진국에서 국내로 순유입되는 자금은 최대 16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선진국 시장 진입이 당장 악재로 작용할 경우에는 자금 순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18일 우리나라의 선진국 편입으로 인한 이머징·선진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크다.

마크 메이크로스 FTSE 그룹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TSE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3조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 정도 한국시장에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3~5%의 지수 퍼포먼스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 600억달러의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증권업계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삼성증권은 선진국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고 선진국 시장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측은 50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대신증권은 순유입 규모가 139억~1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미국발 금융 쇼크 ... 펀드시장 '혹한기'

러시아·브라질 펀드 평균 수익률 곤두박질

미국발 금융쇼크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펀드시장이 피난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18일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자원부국 펀드로 각광받던 러시아펀드는 3개월 평균 수익률이 17일 기준으로 -40.02%로 급락해 러시아 증시가 고점을 기록하던 5월 하순 15.98%와 천양지차를 보였다.

한때 나홀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브라질 펀드 역시 5월 말 28%에 달했던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9.97%로 몰라보게 악화됐으며, 펀드투자의 대안으로 여겨지던 원자재펀드도 유가 급락으로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0.94%에 머물러 있다. 수탁(순자산) 14조원으로 해외투자펀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펀드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4.

82%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투자펀드들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3.85%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13.10%다.

상대적으로 회복 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던 국내투자펀드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지선으로 간주되던 코스피지수 1,400선이 무너지면서 국내투자펀드들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1.33%로 떨어졌으며, 1개월 평균 수익률은 -11.65%를 기록하고 있다.

약세장에 강점이 있는 배당주펀드는 3개월 평균 수익률이 -19.29%,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20.17%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펀드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어 수순에 이른 정도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원/LOEX 광주센터	전표관리 및 분류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0	062-951-0920
㈜시온드	인터넷쇼핑몰/고객상담, 사무관리, 상품검색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0	062-223-1234
원진기획	정규직/주5일근무광고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10-6310-9980
느낀하나	경리 및 웹사이트 관리운영 제작 서버운영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2	062-574-1193
무진주디자인연구소	정규직 시무기/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233-9235
㈜오에이나라	컴퓨터 사무기/ A/S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3	062-224-6073
㈜한국공업지니어링	전국정규직 비파괴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4	062-369-0790
㈜해동정보	통신판매 및 고객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4	062-382-7011
K.T.C	SKT 번호이동상담업무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5	062-716-0142
세계식품광주지점	머거본 광주시점 영업사원	고졸/경력1년	2400~2600	09/26	011-9619-6853
한국인포데이타(주) 전남본부	농협 고객지원 광주센터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6	062-606-2046
㈜두메외식산업	푸드서비스 매장관리 및 영양사 업무	초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09/30	070-7560-3349
㈜윌비통상예비수	의류 판매직 정규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30	062-360-195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